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피서객들이 야영을 즐기고 있다.

/보성군 제공

# “보성 제암산휴양림서 휴가 즐기세요”

숲 활용 체험·액티비티 ‘다양’  
유모차·휠체어 무장애 데크길  
곰썰매·전동휠·짚라인 등 인기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보성군은 최근 휴양림 야영장 전기 공사를 비롯한 사위 시설 정비에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 재개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제암산자연휴양림은 ‘놀이숲’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숲을 활용한 체험과 액티비티가 다양하다.

숲을 가장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야영시설도 51개면을 운영하고 있다. 자연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캠핑장은 ▲소나무숲 야영장(29면) ▲물소리 숲 야영장(20면) ▲하이데크 야영장(2면)으로 운영된다. 이용요금은 데크 크기에

따라 2만~3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각 야영장마다 색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 함께하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 선택하면 된다. 소나무 숲 야영장은 높이 솟은 나무 덕분에 개방감을 느낄 수 있고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한 편이라 가족 단위 캠핑객에게 인기가 많다.

물소리 숲 야영장은 계곡과 가까워 물소리, 바람 소리, 새소리 등을 들으며 더 깊이 있게 자연과 소통하고 조용한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제암산자연휴양림은 야영 시설 이외에도 160ha 규모의 우거진 산림 안에 48개의 숙박시설과 숲 체험 프로그램,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보행약자도 유모차나 휠체어를 타고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데크길은 제암산휴양림의 최대 자랑이다.

특히 숲 해설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층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자연 속에서 쉬를 찾고 생태

를 이해하는 기회로 삼는 산림휴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유아숲 체험은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체험과 교육을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가장 먼저 예약이 마감되는 프로그램이다.

숲에서 즐기는 액티비티로는 곰썰매, 전동휠, 어드벤처, 짚라인 등이 있다. 곰썰매는 출발지 높이 15m, 총 길이 238m 규모로 썰매를 타고 내려가며 자연을 느끼며 높은 곳에서 호수를 조망할 수 있어 많은 체험객이 찾고 있다. 특히, 4~5세의 아이들도 부모님과 동반 탑승이 가능해 가족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예약은 홈페이지에서 이용일 3일 전까지 가능하며 곰썰매만 당일 현장 상황을 고려 후 개인 고객에 한해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보성군 관계자는 “본격 성수기 휴가 시즌이 가까워짐에 따라 불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한 제암산자연휴양림이 최고로 사랑받는 산림휴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백종두 기자

## 고흥 관내 해수욕장 8~11일 개장

고흥군이 유난히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맞춰 해수욕장을 개장한다.

고흥군은 지난 5일 전남에서 가장 먼저 남해해돋이 해수욕장을 개장하고 지역에 있는 10개 해수욕장이 이달 중순까지 모두 개장한다고 6일 밝혔다.

남해해돋이 해수욕장에 이어 발포 해수욕장이 8일, 나무우주·염포·대전·풍류 해수욕장이 9일, 연소·익금·금장 해수욕장이 10일, 덕흥 해수욕장이 11일 각각 문을 연다.

고흥군은 피서객들에게 깨끗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화장실, 음수대, 샤워

장 등 편의시설을 정비했으며,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10개 해수욕장에 총 69명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여수해양경찰서 및 고흥소방서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마스크 착용 완화 등으로 해수욕장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흥=진종연 기자

## 광양, 여름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단속

무허가 영업·가격 미표시 등

광양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 달부터 2개월간 피서지 바가지요금을 집중 단속한다.

광양시는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가격표 표시 이행,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홍보하고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지역경제과를 비롯해 농업지원과, 식품위생과, 관광과, 매설원예과, 철강항만과 등 6개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이뤄지며, 대표적 여름 휴양지로 꼽히는 백운산 4대 계곡과 민박, 유원지, 캠핑장 등 피서지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내용은 피서지 무허가 영업, 가격표 미표시, 표시요금 초과 징수행위, 원산지 표시 미이행, 매장세척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비롯해 위생 상태 및 불량식품 판매 등이다.

또한 물가대책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인연합회 등과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피서지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당요금 신고를 접수하고 현지 확인 후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정구영 지역경제과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피서지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가지요금 등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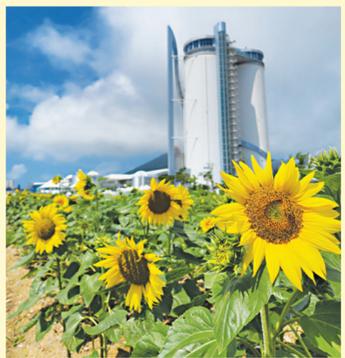
이어 “백운산 4대 계곡 주변 식당, 민박, 캠핑장 등을 운영하는 분들과 내 가족이 이용한다는 마음으로 친절과 위생, 표시요금을 준수해 상거래 질서가 지켜지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는 소비자 불만·피해 처리와 불합리한 거래 구조나 관행 개선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 추진 등을 위해 소비자상담실과 이동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권동현 기자

## 여수박람회장, 해바라기 풍경단지 무료 개방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박람회 개최 1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 분위기 확산을 위해 그동안 가려 온 해바라기 풍경단지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사진>

지난 4월부터 박람회재단에서는 지역 봉사단체와 함께 박람회장 5,000㎡ 부지에 1만5,000여 송이 해바라기 모종을 심어 정성껏 키웠다. 개방 행사는 오는 9일 박람회장 스키이트워 앞 현장에서 꽃밭 가꾸기에 참여한 회원들과 함께 가질 예정이다. 꽃밭은 30여 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된다. /여수=곽재영 기자



## 순천,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문 열었다

원스톱 서비스 제공

순천시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기관 전남 동부본부가 최근 문을 열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기관은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중간 역할로 사회적기업 인증 컨설팅과 기업 실적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전남권역 사회적경제 통합지원기관은 올해부터 ▲(사)전남도농촌진흥지원센터(나주) ▲(사)상생나무(여수)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었으나 지난

4월 순천 아랫장에 (사)전남농촌종합지원센터의 분점으로 동부본부를 개소했다.

이로써 순천과 전남동부권 사회적경제기업의 낮은 접근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 및 상담·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게 된다.

또한 (사)전라남도농촌진흥지원센터와 전남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가 상담·지원과 판로 확대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업무중복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협업한다. /순천=박경식 기자

### 클릭! 고향 속으로



#### 여수 여천동 새마을협, 옥수수 나눔행사

여수시 여천동 새마을협의회가 최근 ‘옥수수 나눔행사’를 가졌다. 이날 새마을지도자와 여천동장 등 20여 명은 옥수수 2,000여 개를 수확해 경로당과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주효영 새마을협의회장은 “땀 흘려 키운 옥수수를 어르신들께 대접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춘 여천동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나눔을 실천해주신 지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여천동 새마을협의회는 직접 일군 사랑의 텃밭에서 감자와 고구마, 옥수수 등 농작물을 수확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여수=곽재영 기자



#### 광양소방, 전남 119구급활동 경연 최우수상

광양소방서가 최근 열린 제4회 전남 119구급활동 경연대회에 출전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광양소방서 대표 선수로 출전한 남윤길, 이승룡, 차경미, 박민선 대원은 가상 중증응급환자를 대상으로 ▲구급활동 ▲구급활동기록지 ▲지휘자 디브리핑 ▲구급 시나리오 평가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서승호 광양소방서장은 “이번 경연대회 최우수상을 받은 대원들의 구급활동 등을 모든 대원들과 공유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시키겠다”며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동현 기자



#### 곡성 군촌마을, 경관 개선 풀베기 ‘귀감’

곡성군입면 군촌마을 주민들이 최근 자발적으로 풀베기 작업을 실시해 귀감을 사고 있다. 이날 주민 10여 명이 마을 경관 개선과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해 마을 구석구석의 잡초를 제거하며, 이른 아침부터 구슬땀을 흘렸다. 군촌마을에는 현재 약 4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곡성군의 대표

적인 문화재 함허정과 제호정 고택. 제월섬이 있는 마을이다. 심재술 마을 이장은 “농사일로 바쁜 와중에도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며 “마을과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 밭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곡성=한정길 기자